

중국, 2004년 상반기 식량생산 증가

2004년도 상반기 중국의 식량생산과 농민소득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농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기(轉機) 맞이하고 있다.

1. 작물 생산량 증가

금년도 소맥을 포함한 여름철 수확작물의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4.8% 증가한 1억 105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년 연속 감산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진다. 올해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4,000만무(1무는 약 200평) 가량 증가한 15억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5년 연속 계속된 감소 국면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도 상반기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1,345위안(약 201,750원)으로 10.9%의 실질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7년 이래 최고치라 볼 수 있다. 특히 농민의 현금소득 증가는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증가폭을 상회하고 있고, 두 자리수 증가폭을 나타내는 등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식량 증산과 농민소득 증가는 당과 정부가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과 지지 역량을 강화한데서 비롯되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수차례 전문회의를 소집하면서 식량생산과 농민소득증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농민수익 확보를 위한 식량최저수매가제도의 시행, 농민부

담 경감을 위한 농업세의 세율 감소, 농민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 보조 제공 등이 그것이다.

2. 농업투자 확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확대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올해 들어 농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지원자금은 1,500억 위안으로 최고 수준이다. 당국은 식량위험기금 중 100억 위안을 식량 주생산지역의 농민에게 직접보조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억 위안을 안배하여 우량품종 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또, 4,000만 위안을 16개성(省)의 66개현(縣)에 농기구시설구입보조 비목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당국은 농업원자재가격 감독을 강화하여 그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 화학비료 출하가격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식량 및 화학비료의 철도운송비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식량가격의 상승과 식량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농민의 농산물 판매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도 농민소득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은 1인당 평균 589위안으로 18.9% 증가하였다. 올해 1인당 평균 농민 순소득 증가폭이 연초의 목표 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칭린(杜青林) 농업부 장관은 올해 농업과 농촌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정책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은 금년 하반기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민소득증가에 주력하면서 식량유통체제개혁과 농촌세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토지관리 체제와 제도를 건립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 <http://www.agri.gov.cn>
(이현주 hjlee@krei.re.kr 02-3299-43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